

## Verdict

시장은 중동 전쟁 확전에 따른 유가 급등(WTI \$91.3, 1개월 수익률 +44.26%)이 공급 측 인플레이션 충격을 촉발하여 글로벌 경기가 급격한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음. VIX 29.49의 공포 수준, 원/달러 1,484.59원의 극단적 통화 약세, 금 \$5,179 등 안전자산 급등은 시스템 위기급 리스크오프를 반영하며, 시장 참여자들은 지정학적 프리미엄과 후행 지표의 시차를 근거로 실물 경기의 급격한 하강이 임박했다고 포지셔닝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수집된 실물 경제 증거는 시장의 극단적 공포 프라이싱을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함. 결정적으로, ICESA 21.3만 건은 역사적 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 시장의 균열 신호가 전혀 포착되지 않음. 이는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소비 지출의 급격한 붕괴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T10Y2Y 스프레드 0.56의 양수 전환이 역사적으로 침체 진입 직전 신호라는 가설 A의 논리는 유효하나, 그 시차가 통상 6~18개월에 걸치므로 향후 4~6주 내 급격한 실물 악화를 뒷받침하지는 못함. WTI의 1개월 +44.26% 급등과 연환산 변동성 58.03%는 극단적 스파이크 패턴을 보이며, RAG 검색 결과에서 확인되듯 지정학적 이슈에 의한 유가 상승은 '일시적 이슈'로 분류되는 사례가 다수임. INDPRO 102.3의 장기 정체는 경기가 '둔화' 국면이지 '붕괴' 국면이 아님을 시사하며, 수요가 이미 악화된 환경에서 유가 상승의 인플레이션 전이 효과는 수요 파기를 통한 자기 조정 메커니즘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USDKRW(1개월 +0.95%)와 DXY(1개월 +1.07%)의 움직임이 거의 동조화되어 있어, 원화 약세는 한국 특수 리스크보다는 달러 강세의 글로벌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Action:** WTI 숏 포지션 및 리스크 자산 비중에 대해 소폭 조정을 검토하되, ICESA 추이를 주간 단위로 모니터링 강화하며 점진적으로 리스크오프 포지션을 축소하는 방향을 고려.

**Invalidation:** ICESA가 향후 4주 내 2주 연속 25만 건을 상회하며 고용 시장 균열이 가시화될 경우

**Risk Factors:** 매크로: WTI \$91 수준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기업 마진 압축과 소비 위축이 동시 진행되며 INDPRO의 하락 전환이 본격화될 리스크, 기술적/포지셔닝: VIX 29.49에서 30+ 극단적 공포 영역 돌파 시 시스템적 디레버리징과 마진콜 연쇄가 촉발되어 자산 가격의 추가 하방 오버슈팅 리스크, 이벤트: 중동 전쟁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물리적 공급 차질로 확전될 경우, 유가가 \$100+ 수준으로 추가 급등하며 시장의 공포 프라이싱이 정당화될 리스크

## Macro Picture

**Regime:** slowdown

**Key Themes:**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WTI \$91.06), 외환 시장의 극단적 변동성(KRW 1,500원 돌파), 공포 지수 급등 속 안전자산 쏠림(GOLD \$5179.2)

**Dominant Narrative:** 중동 전쟁 위기로 인한 유가 급등(WTI \$91.06)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시장 내 '공포' 심리(VIX 29.49)가 확산됨.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하고 금 가격이 5,179.2달러를 기록하는 등 극단적인 리스크 오프(Risk-off) 흐름이 지배적임.

**Reality:** 연준 베이지북은 '완만한 성장'을 보고했으나, FRED 데이터상 1월 INDPRO(102.3)와 UMCSNT(56.4)는 장기 정체 국면을 시사함. 다만 2월 28일 기준 ICESA가 21.3만 건으로 고용 시장이 견조하고 3월 5일 기준 T10Y2Y 스프레드가 0.56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정학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의 즉각적인 침체(Recession) 신호는 FRED 수치상 아직 제한적임.

## Hypotheses

**Key Question:** 향후 4~6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ICESA)가 25만 건을 상향 돌파하며 고용 시장의 균열이 가시화되는가, 아니면 22만 건 이하를 유지하며 실물 경기의 하방 지지력이 확인되는가?

## Tensions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심리적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나, 실물 고용 및 성장 지표는 여전히 견조함을 유지함.

0.70

**Narrative:** 중동 전쟁 확산과 유가 급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가 즉각적인 침체와 패닉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함.

**Reality:** 2월 ICESA(21.3만 건) 기준 고용 시장이 견조하고, 연준 베이지북은 경제의 완만한 성장을 보고하며 실물 경기의 하방 지지력을 확인됨.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등 통화 가치 급락이 시스템 위기감을 자극하고 있으나, 금리 스프레드는 급격한 침체 신호를 보이지 않음.

0.60

Narrative: 환율이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하며 금융위기급 시스템 붕괴 및 자본 유출 가속화를 우려함.

Reality: 3월 T10Y2Y 스프레드가 0.56을 기록하며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즉각적인 경기 침체 징후는 FRED 데이터상 제한적임.

USDKRW KOSPI DXY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높으나, 실제 산업 생산 및 소비자 심리는 장기 정체 국면에 머물러 있음.

0.50

Narrative: WTI \$91.06 돌파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여 연준의 긴축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함.

Reality: 1월 INDPRO(102.3)와 UMCSENT(56.4)는 이미 수요 둔화 및 산업 생산의 장기 정체 국면을 시사하여 추가적인 물가 상승 동력이

WTI GOLD COPPER

### Eval Scores

PASS

Overall	<div style="width: 75%;"></div>	3.25
Tension	<div style="width: 60%;"></div>	3
Hypothesis	<div style="width: 85%;"></div>	5
Evidence	<div style="width: 50%;"></div>	2
Verdict Logic	<div style="width: 70%;"></div>	3

**Feedback:** 내러티브와 현실의 대립 구조 및 가설의 반증 가능성은 매우 우수함. 그러나 인용된 데이터의 정확성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 특히 T10Y2Y 스프레드가 0.56(양수)이라는 진술은 현재의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음수)과 정반대이며, INDPRO 102.3 등의 수치도 최신 데이터와 괴리가 큼. 가설 A의 'Un-inversion' 논리는 훌륭하나, 잘못된 현재 수치(0.56)를 바탕으로 '침체 진입 직전'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논리적 기반을 약화시킴. 재시도 시 FRED API를 통해 T10Y2Y의 실제 음수 값과 ICSA의 최신 추세를 정확히 반영하고, 수치 기반의 판단을 재점검할 것.

MORNING ANGLE 2026-03-06

